

“孝실천·봉사의 도량 될것”



9월 15일 열린 신안 불교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개원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신안에 불교노인전문요양원 개원

지역민에 건강검진 기초생활자 무료 입소

남도 땅 서쪽 끝 신안군에 불교노인전문요양원이 개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목포지부(지부장 법정 스님)는 9월 15일 신안군 압해면 바닷가에 자리한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식을

을 봉행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해남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을 비롯한 관내 사암 스님들과 고길호 신안군수, 고관술 신안군의장 등 지역 기관장, 사회복지 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몽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요양원은 불교의 효 사상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어르신들을 소중하게 모셔 잊혀져가는 효를 되살리자”

고 말했다. 개원식에 이어 몽산 스님과 고길호 군수는 원내에서 요양원 개원을 축하하는 기념 식수를 했다. 이번에 개원된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은 부지 1600여 평,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400평 규모로 물리·심리 치료실과 세탁, 목욕, 이 미용실 등 현대식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 요양원에는 65세 이상 치매, 중풍 등 만성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다. 또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각종 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민을 위해 정기 건강검진과 생활환경개선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있다.

또한 요양원장을 맡은 성원 스님은 “불교 복지 불모지나 다름없는 오지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며 “자원봉사는 물론 정기 후원회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노인전문 요양원은 지난해 12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목포지부가 신안군으로부터 위탁받아 현재 51명의 노인이 입소해 있으며 이들을 위해 간호사, 복지사 등 29명의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신안군노인전문 요양원(www.yoyangwon.or.kr. 061-271-6100) 후원: 농협 653026-51-034071 (예금주)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이준엽 기자

관세음 보살상 진위 결론 못내 절차없이 이윤 복장 개봉 수난



최근 진위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순천 선암사 원통전 관음보살상 감정(사진)이 선암사 대중과 순천시 관계자, 감정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9월 10일 선암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렸다.

이 과정에서 관음보살상이 의식절차도 없이 감정실까지 이윤되고 복장(復藏)이 개봉되는 수난을 겪었다. 이날 감정위원들은 불상의 진위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각자 감정소견서를 순천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관음보살상은 선암사 원통전(유형문화재 169호) 주불로 18세기 중엽 목조로 조성되었다. 최근 일부 스님들이 ‘원통전 불상이 바뀌었다’고 주장해 이날 전문가 감정 이어졌다.

이준엽 기자

송광사 영산전 부식심해 보수

해충과 습기로 부식이 진행 중인 순천 송광사 영산전(보물 제303호)이 내년 초 전면 해체보수공사에 들어간다.

송광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영산전 바닥 천정이 부식으로 변색되고, 단층이 훼손되고 있어 보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며 “내년 초 전면 해체보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송광사 영산전은 조선 인조 17년(1639년)창건, 1963년 보물 303호로 지정됐으며, 조선 전기 건물의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준엽 기자

‘보조국사 지늘’ 엽서로 화현

보조국사 지늘 스님이 엽서로 화현해 대중 속으로 다가간다.

순천 송광사는 1세 보조국사를 비롯해 2세 진각국사, 14세 정해국사 진영을 엽서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송광사 문화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한 이 엽서는 ‘법열에 뜨는 탕화’ ‘성보’ ‘조계종림의 우아한 자태’ 등 3종류로 각 10매씩 3000조를 제작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는...

서울 시간동 법련사

“포교 30년 노하우 보여줄 것”

“법련사가 도심 포교를 시작한지 벌써 30년째입니다. 이제 한 단계 품격 높은 불교, 불자들이 참여하는 불교를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974년 개원 이래 삼보회 보림회 등과 함께 대표적인 수행단체로 꼽히는 불일회의 활동 무대 서울 법련사(주지 보경) 도심 포교의 중추 역할을 해 온 법련사가 최근 제2의 도약을 맞고 있다.

이는 인근 인사동 삼정동 지역이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촌으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지난해 주지 소임을 맡은 보경 스님은 급격히 변화하는 주변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30년 넘게 쌓아올린 ‘저력’이 그만큼 빛을 바래게 된다고



주지 보경 스님

사람 음식 강좌 등 포교 프로그램을 꾸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올 6월에는 군 포교를 위해 호신불 30만개를 군법사단을 통해 지원하는 군포교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군데 불교 복지시설 등에 의류 2000점을 전달하기도 했다.

오랜 연륜을 가진 신도회의 재정비 역시 중요한 일이다. 조달공 성균관대학교수, 재가법사 여진거사, 수관 거사, 신영훈, 최원수 문화재전문위원 등 기라성 같은 신도들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도회를 재조직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법련사는 불교계 대표적인 학술단체 보조사상연구원의 논문집 <보조

미술관·서점·출판사 갖춘 문화공간 활성화

판단했다. 그래서 법련사는 문화 포교의 전진 기지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문화포교 도량을 만드는 일에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젊이 보유한 미술관과 서점, 출판사, 학술단체를 120% 활용하는 지혜를 모으는 것도 시급했다.

올해 초 불일미술관에서 연 칼라차크라 만다라 전시회도 그런 목적으로 열렸다. 티베트 불교의 진면목을 불자들에게 소개하고, 각종 불교 문화강좌들도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법련사는 내년 활동을 목표로 경희대 자연사 박물관과 함께 어린이 환경교실, 생태기행, 불교문화학교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린이 요가교실,

사상>을 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해 공신력도 높일 계획이다. 한·중·일 불교학자 50여명을 연구원으로 임명하고 제2기 연구위원회를 올해 내로 발족되면, 연 8차례 진행되는 월례 발표회와 정기학술대회를 한층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법련사는 이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재정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보경 스님은 “도심사찰들은 신도를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을 타종교에 빼앗기는 것 같다”며 “학교 육영 사업 등을 지원,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교신자로 만드는 활동을 펼쳐 서울의 불교문화를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2)733-5315

강유신 기자



법련사는 보조사상연구원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논문집 <보조사상>을 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할 예정이다. 사진은 보조사상연구원이 제57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하는 모습.

“선운사의 가을엔 음악이 활짝”



전통 불교문화와 현대 대중음악이 만나 한바탕 ‘야단법석’을 펼쳤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예)는 9월 11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천년을 잇는 소리제전, 산사음악회(사진)’를 개최했다.

개산 1427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산사음악회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1000여 대중이 함께했다.

음악회에 앞서 주지 법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마음과 마음이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산사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세속

산사음악회 천여명 동참

의 묶은 찌꺼기는 남김없이 버리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는 사중 스님들이 직접 출연해 법고, 대금, 주, 3중 합주를 선보였다. 또한 한영애, 권인하, 주병선, 한서경 씨 등 국내 정상급 라이브 가수들이 나와 대중과 하나 되는 시간을 꾸몄다.

한편 선운사는 산사음악회에 앞서 영산전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식을 봉행하고, 사진작가 전제우 씨의 ‘선운사 사계 사진전’을 만세루에서 개최했다.

이준엽 기자

하은혜·박준 등 6명에 치료비 생명나눔본부, 소아암 기금

생명나눔실천 광주 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이하 생명나눔본부)는 지난 15일 화순

전남대병원 원장실에서 소아암 백혈병 환우 치료기금 1000만원을 강형근 병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생명나눔본부가 ‘살을 나눔시다, 생명을 나눔시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것으로 소아암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하은혜(5), 김용태(7), 박준(17)군 등 6명의 환우 치료비로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소아암 환우 돕기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 본부는 금년 들어 3차에 걸쳐 16명의 소아암 환우들에게 총 47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준엽 기자

마라도 기원정사 봉불점안

우리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해수관음성지인 기원정사(주지 혜진)는 9월 12일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 등 5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관음전 봉불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법흥 스님은 “이번 해수관음전 신축불사를 계기로 기원정사가 최고의 해수관음기도도량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www.bbsfm.co.kr



BBS FM 101.9MHz

큰스님! 불교방송 맞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즐거움, BBS 불교방송

세상 이야기, 음악 이야기, 문화 이야기, 시사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은 물론,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BBS 불교방송 - 듣고 싶다면 어깨가 들썩이고,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귀를 땄 수 없는 즐거움, BBS 불교방송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 서울 FM-101.9MHz
- 부산 FM-89.9MHz
- 광주 FM-89.7MHz
- 대구 FM-94.5MHz
- 안동 FM-97.7MHz
- 포항 FM-105.5MHz
- 경주 FM-96.7MHz
- 춘천 FM-100.1MHz

BBS 불교방송